

무주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적상면 방이지구 야영장·설천면 소천리 일원 임대주택 조성 등 논의

무주군은 지난 31일 무주 방이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무주(설천)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위원회를 열었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 일원 전통민장공설비 조성 부지에 야영장 등을 조성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군은 야영장이 조성되면 방이 지구의 자연경관과 주변여건 등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31일 무주 방이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무주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위원회를 열었다.

실제로 전통민장공설 체류활동과 더불어 반딧불이 탐사와 함께 하는 야영, 사과와 표고 등 방이리의 농·특산물에 어울리는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여일 부군수는 "사업은 지역활성화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모든 일들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무주(설천)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8,908㎡ 규모에 2동짜리 80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으로, 무주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무주군 경관위원회에서는 윤여일 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무주군의 경관관리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무주군의 이미지에 걸 맞는 건축물의 경관 조성을 위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은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장수종합경기장 외 5개 구장에서 정읍 신태인 중학교 등 중등부 13개 팀이 찾아 전지훈련 겸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장수, 스포츠도시 1번지 발돋움

하계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 시설 개선 힘 쏟아

무주군은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장수종합경기장 외 5개 구장에서 정읍 신태인 중학교 등 중등부 13개 팀이 찾아 전지훈련 겸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장수군은 해발 430m이상의 높은 고지대로 운동선수 등의 심폐강화 훈련에 최적지이고 타 지역보다 기온이 2~3도 정도 낮고 습도도 높지 않아 여름철 전지훈련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장수군은 4개의 천연잔디 구장, 2개의 인조잔디 구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는 장수종합경기장에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 축구 전지훈련 장소로 시설 개

선에도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지훈련 겸 스토브리그 축구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장수군은 국내에서 한 여름에도 축구경기와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장소와 시설을 갖추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류지봉 소장은 "앞으로도 여러 체육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여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스포츠의 도시 장수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 계북면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양영수)는 지난 30일 위원회를 열어 제69회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로 공익장에 김흥기씨(63), 효열장에 박영자씨(47)를 각각 선정했다.

공익장 김흥기씨는 2005년~2013년까지 공직생활을 하며 계북면에 기여했으며, 퇴직 후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북면 농업인상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품목별 작목별 조직육성,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정책사업 및 농업기술센터시범사업 유치 등의 공적이 있으며, 지역발전과 농업인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효열장 박영자씨는 바쁜 직장 및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아내로,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표상이 됐으며, 1남 3녀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8월 15일 제69회 계북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실시된다.

/장수=고판호기자

진안 건설기계 명예감시원 위촉

진안군은 불법 건설기계 사용 근절을 위해 지난 31일 건설기계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계 명예감시원 3명에 대한 위촉식을 군수실에서 가졌다.

최근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필요성 대두됐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건설현장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등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기계 사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진안군은 이번 명예감시원 위촉을 계기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더위쉼터 경로당 점검 완료

진안 마령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승호)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4개소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경로당 개방 여부와 냉방기(에어컨, 선풍기 등)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포스터 부착과 안내,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등을 홍보했다.

이승호 면장은 "올해 폭염으로부터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여름피서지 '장수군' 이유있는 인기

내륙산간지역으로 7~8월 평균기온 가장 낮은 도시·열대야도 피해가

요즘 20여일간 지속되는 폭염 열대야 속에서 피서지로 장수군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최근 20년간의 기후자료 평년값에 따르면 장수군은 7.8월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도시로 중부이남지역이면서도 전국 6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 10위 안에 강원도 5곳, 경북 북부 2곳, 충북 북부 1곳, 경기 북부 1곳, 전북 1곳으로 위도가 높은 곳이 대부분인데 장수는 이중에 위도가 가장 낮음에도 6번째로 시원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수군은 열대야도 피해가는 지역으로 장수군에 대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88년부터 열대야가 발생한 날은 단 5일 뿐이다.

전국이 폭염과 열대야로 팔팔 끓고 있는 한반도에서 장수군이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고산(高山)지대인데다 백두대간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다.

장수군의 대부분 지역은 해발



지속되는 폭염 열대야 속에서 피서지로 장수군이 각광을 받고 있다.

400m 이상으로 일교차가 크며 한 낮에는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새벽엔 이불을 깔아도 덮을 만큼 서늘하다.

이러한 밤낮의 큰 일교차로 장수 지역의 농산물은 단단하고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하며 특히 사과와 아삭하고 달콤한 과육이 여기에서 생겨난다.

여름 뿐 아니라 사계절 인기있는 장수의 와룡휴양림과 방화동휴가

촌은 갈수록 인기 있는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개장한 대곡 한옥단지 또한 한옥의 그윽한 풍경과 시원한 정취를 만끽하는 숙박지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부산에서 왔다는 방화동휴가촌의 한 피서객은 "내륙산간지역으로 한 낮 기온도 시원하고 열대야 현상도 없어 최근 3년간 연속 방문해 여름 피서를 즐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여성권의 증진 건강한 장수만들기 앞장

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서 강연 등 군민 큰 호응

장수군은 지난 31일 한누리집담 소공원에서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의장 및 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다채로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10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성평등 강연에서는 정진일 강사가 '당신의 성공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옥이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노력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장수를 만들고 이번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원천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병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병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병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